

ARCHITECTURAL REVIEW

2006년 4월호

이 번 호 는 독일 특집으로 기획되었다. 얼핏 월드컵 시류를 따른 듯 보이는 기획의 의도는 생각보다 진지하고 무겁다.



외국의 '스타 건축사'에게 유독 관대해 보이는 독일 건축의 상황이 오히려 기술력이 바탕이 된 '독일이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독일의 자생적 건축의 가능성과 저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국 건축사에 의해 진행된 베를린 올림픽 주경기장 리노베이션과 자하 하디드와 프랭크 게리, 렌조 피아노와 카즈요 세지마 등과 같은 외국 건축사가 설계한 독일 내의 건축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의 건축 상황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피터 쿡의 글과 함부르크의 도시 상황을 다룬 레일라 도슨(Layla Dawson)의 글도 이를 위한 이해를 돕고 있다. 흥미롭게도 주최국이란 뜻과 건축주라는 의미로 동시에 독해될 수 있는 호스트(host)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독일을 '좋은 호스트(good host)'로 표현한 기획의 제목에서도 예민한 감각과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다.

■ Olympic rebirth : 베를린 올림픽 주경기장 리노베이션 / 위치 : 독일 베를린 / 설계 : Von Gerkan, Marg & partner(GMP)

우리에게 손기정의 금메달과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익숙한 베를린 올림픽 주경기장의 역사는 1909년 Otto March가 당시 독일 제국의 빌헬름 황제의 요구에 따라 만든 경마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경마장을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개조할 첫



Berlin Olympic Stadium Renovation

번째 계획은 1916년의 올림픽이 1차 대전으로 인해 취소가 되자 무산되었다. 이 계획이 다시 빛을 본 것은 나치 정권이 권력을 잡은 직후 Otto March의 아들 Werner March에 의해서였다. 히틀러는 이 주경기장이 스포츠와 정치적 선전 목적에 동시에 부합하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아들 March는 집회장소와 야외극장, 수영장, 독일 스포츠 포럼을 포함하는 복합적 시설을 만들었다. 2차 대전의 포화를 견디어 내고 이후 영국군 주둔 시 본부 건물로 사용되었을 때에도 별다른 피해 없이 유지되던 이 건물은 차츰 낡아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비껴있게 되었다.

1998년 주경기장 리노베이션 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된 독일인 건축가 Von Gerkan(GMP)의 안은 근대적 스포츠 시설에 대한 요구와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에 대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주경기장 리노베이션은 콘크리트 구조의 보수와 관람석의 재배치 및 확장, 경기장 수평면의 2.65m 하강, 새로운 지붕, 내부 시설의 근대화, 100개의 귀빈석 라운지와 식당을 위한 독립적인 입구, 63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과 워밍업을 위한 120m 실내 트랙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지어지는 시설은 모두 지하에 두었다. GMP는 관심을 받지 못하던 낡은 경기장을 수용 능력을 7만 6천명으로 늘린 최첨단의 복합 스포츠시설로 변모시킨 것이다.

최대한 기존 건물이 가지는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건물에 사용된 각각의 석재들은 주요 구조보강 이후 다시 제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리노베이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붕시설은 외부에서 볼 때는 기존 매스의 비례감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평평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역설적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마라톤 트랙 출

구의 상부를 개방하여 지붕구조로 인한 폐쇄감을 완화시키고 시각적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유도하고 있다.

올림픽 주경기장의 지붕구조는 평평하고 긴 스패(68m)를 가지면서 동시에-구조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던-달린 고리 형태의 구조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다. 지붕구조는 반투광성 막으로 덮여 있는데, 아간에는 내부에 설치된 최첨단의 음향 및 조명시설로 환상적인 '불의 고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는 경기 전반에 걸쳐 극적인 효과를 배가 시킬 것이다.

2006년 6월 이 경기장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다. 올림픽 주경기장의 완전한 부활이 완성되는 것이다.

■ Phaeno Science Center : 파에노 과학 센터/독일 볼프스부르크/자하 하디드

이 작품에서 방문객은 거대함과 수공예적 섬



Phaeno Science Center

세함이라는 이질적인 감각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자하 하디드는 컴퓨터 분석 기술과 건축사 특유의 형태적 관심을 결합시켜 형태를 만들어 내는 관습에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형태적인 측면에 집중된다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건축사 본인이 소규모의 도시계획(mini urbanism)이라고 언급했듯이 이 건축물은 물성과 공간의 형성, 교묘한 형태의 전체적 통합을 통해 도시와 장소성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

이질적이고 낯선 형태에 대한 하디드의 관심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 건축물에서는 매스를 들어 올려 독일고속철도 이체(ICE)와 연결시키고 도시의 주요 공적 영역인 포르쉐 거리(Porchestrasse)의 종결점과 건물 하부의 공공 공간을 고유의 방법으로 정의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파에노 과학센터는 필로티를 도입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지상층을 효과적으로 재생산하는데 실패했던 모던 무브먼트(Modern Movement)에 대한 비평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디드의 비평은 대량생산의 한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다. 이는 도시적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볼프스부르크의 산업적 배경에 유효할 뿐만 아니라 건축사 본인의 '독특한 공공건물'에 대한 관심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에노 과학센터는 하디드가 30년간에 걸쳐 행한 연구의 통합 및 확장으로 그간 하디드 건축에서 보이는 연속적인 표면과 조각적인 공간들, 굴착된 형태와 유동성을 보다 심화된 방식으로 보여준다.

형태 측면에서 파에노 과학센터는 헤르조크 앤 드 뮈롱의 바르셀로나 포럼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포럼의 매스가 소재의 사용과 지상층 빛 처리 등에서 상부 매스의 분리감과 상승감에 주목한 반면 파에노 과학센터는 정 반대의 노선을 취한다. 상하부 같은 소재인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자연광의 의도적인 유입을 피함으로써 파에노의 지상공간은 보다 은밀하고 정적으로 상부 매스와 대지의 통합을 암시한다. 파에노 과학센터는 외부와 내부의 환경들을 성공적으로 연계시킨다. 이 건축물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내외부의 연속성을 극적으로 구현하는 태도는 대단히 뛰어나다. 하지만 남측의 프리폼 콘크리트에 의한 플래스터 마감의 입면은 이런 개념적 명확함을 흐리는 부분이다. 하지만 건물의 대부분에서 이와 같은 연속성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파에노 과학센터는 20세기 하디드가 행한 연구 프로젝트의 구현으로서 21세기의 특징들을 담은 건축의 시발점으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볼프스부르크에서 '건축적 산책'에 관한 한스 사로운과 알바 알토의 위치는 이제 한동안 하디드의 몫이 될 것이다.

■ P&C Department Store : 피앤씨 백화점/독일 콜로뉴/렌조 피아노

피크 앤 클로펜부르크(Peek & Cloppenburg

; P&C)는 독일을 기반으로 벨기에와 네덜란드, 최근에는 폴란드와 러시아에까지 확장된 지점을



P&C Department Store

가지고 있는 백화점 체인이다. 피앤씨 백화점은 자사 이미지 제고와 매출 확대를 위해 클라이투스, 리처드 마이어, 굿프리트 뵘과 같은 창조적인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 왔는데 최근에 렌조 피아노에게 의뢰한 콜로뉴 지방의 백화점이 작년에 완공되었다.

변화한 쇼핑지역과 소란스러운 간선도로 사이에 위치한 대지 근처에는 콜로뉴에서 유명한 고딕 성당인 성 안토니터키르케 성당(St Antoniterkirche Cathedral)이 있다. 대지 주변은 주로 1970년대에 지어진 모노톤의 콘크리트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렌조 피아노는 이런 환경으로부터 대지에 들어가는 건물의 성격을 정립해나갔다. 이 건물은 대담하되 주변 건물보다 조금 높은 5층 높이의 부드러운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물결처럼 출렁이는 등마루선을 가진 위로 볼록한 형태의 유리 볼륨(길이 130m)은 주변의 전형적이고 정통적인 건물 볼륨들 사이로 구비 치며 성당과 주변 건물들을 포용하는 태도를 취한다.

렌조 피아노의 건축을 다룰 때면 의례히 그렇듯 이 건물의 외부 유리벽의 기술적인 측면에 찬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건물에는 건축사의 도시적 야망이 잠재하고 있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측면의 하부는 성당 전면부에 보행자를 위한 공공 광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며, 대지 하부로 지나가는 자동차용 도로의 입구에 대한 참조점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은 여전히 경탄을 자아낸다. 익숙한 음악을 연주하듯 건축 기술의 선단에서 집

성재로 된 리브와 강구조, 커팅 유리판으로 투명한 베일에 둘러싸여 주광을 필요한 만큼만 소핑 공간에 받아들이는 건축을 구현한 것이다. 태양광의 선택적 유입은 루버에 의해 가능하다. 이 루버는 개방이 가능한 형태로 내부에 축적된 열기를 외부로 발산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콜로뉴에 새롭게 나타난 유리 고래는 이제 막 해변에 도착했다. 도시는 새로운 성당을 자랑으로 삼게 될 것이다. 상업의 위대한 신성을 표현하는 피앤씨 백화점이라는 이름의 성당을 말이다.

ARCHITECTURAL RECORD

4월호

이번호는 주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빈번한 파괴적 도시 재개발에 의한 '이웃'의 물리적 파괴와 공동체의 유지에 관한 비평과



미국과 일본의 주택을 다루고 있는 서적 리뷰를 지나 건물 유형 연구에서는 레코더지가 선정한 올해의 주택 8채를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작가는 아르타디 아키텍츠, 올슨 준트버그, 쿠마 켄고, 마야 린, 오피스 디 에이, 웬델 버닛, 알바로 시자, 블랙 스튜디오 로 유명 작가의 완숙함 보다는 대지와 연관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실험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을 준다.

■ 비평

〈환상통 : 이웃은 파괴된 후에도 지속된다 (Phantom Pain : A neighborhood lives on after its destruction)〉

환상통은 신체 일부가 절단되었을 때 손실된 신체에 대한 감각을 몸이 느끼는 것으로 무분별한 파괴의 양상으로 진행되는 도시 재개발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다.

보스턴 근처에 웨스트엔드(West End) 지역은 1962년 재개발 되면서 모든 건물이 파괴되었다. 당시 12,000명에 달하는 거주민은 대부분 저소득층이었고, 당국은 재개발 후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약속했지만 돌아 올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놀랍게도 당시 거주민들은 44년이 지난 지금에도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를 통해 이전 거주민들을 위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진과 편지들을 수집하여 지난날들을 회상하고 박물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여전히 자신들을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것일까. 필자 로버트 캠벨은 기억(memory), 관능(sensuality), 복잡함(intricacy), 위치(location)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도시 자체가 기억을 형성하고, 기억은 여러 가지 감각들로 구성된다. 이에 의한 감각적 관능은 공동체에 대한 감성을 강하게 환기하고, 비좁았던 웨스트엔드 지역은 기억과 관능을 구성원 서로에게 깊이 전사(imprint)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강과 바다, 철도와 지하철과 맞닿아 있는 특유의 위치는 반세기 가 지나도록 서로가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본문은 이러한 감성적 요소가 있는 한 웨스트엔드의 조직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마무리된다.

■ 신간서적 리뷰

일본의 현대 주택을 주제로 한 서적 두 권이 소개되었다. 비슷한 시기를 다루지만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나오미 폴락(Naomi Pollock)의 『Modern Japanese House』, 마르샤 이와타테(Marcia Iwatate)와 그리타 메타(Greeta K. Mehta)가 쓴 『Japan Houses』.

이외에도 라이트와 서구의 현대 주택을 다룬 앨런 헤스(Alan Hess)의 『Frank Lloyd

Wright : the houses』, 얀 호흐스팀(Jan Hochstim)의 『Florida Modern : Residential Architecture 1945~1970』, 클리포드 피어슨(Clifford Pearson)이 편집한 『Modern American Houses : Fifty years of design in Architectural Record』 그리고 마이클 웹(Michael Webb)이 지은 『Art/Invention /House』에 대한 리뷰가 게재되었다.

■ 건물 유형 연구 - Record Houses 2006

선정된 8개 작품은 각각 지어진 장소와 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 기후, 랜스스케이프를 통해 그러한 연관성은 가장 우선되는 요소이다.

- 하비에르 아르타디(Javier Artadi)의 Las Arenas Beach House는 페루의 황량하고 건조한 해변에 위치한다. 순 백색의 콘크리트는 날카로운 햇빛 아래 서있고, 온화한 기후 속에 건축물은 문자 그대로 야외생활에 '열려' 있다. 여전히 모더니즘 건축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올슨 준트버그 쿤디히 알렌(Olsen Sundberg Kundig Allen)의 Stilt House는 스틸과 합판으로 지어진 숲속의 은신처 같은 주택이다. 네 면으로 모두 창문이 있으며, 개방 가능한 강판재 패널은 미서기로 움직이면서 개구부의 크기와 입면을 필요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다.
- 쿠마 켄고의 Lotus House는 도쿄 근교에 있다. 실제감을 느끼기 어려운 얇은 트래버틴 패널로 된 바둑판 모양의 스크린 주택의 표면을 감싸고 있어 마치 연못에 떠 있는 연꽃과 같이 미묘한 부력을 건물에서 느끼게 한다. 이는 캔틸레버로 설치된 계단에서도 확인되며, 바둑판무늬는 연못의 디딤돌에서 다시 한 번 암시된다. 유리로 세면이 처리된 거실 공간은 시각적으로 주변 자연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일본에서만 가능한 건축이 시도되었다.
- 콜로라도 로키산맥에 있는 마야 린(Maya Lin)의 Box House는 동양의 퍼즐 장난감

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힌지결합으로 움직이는 외부의 나무 루버형태의 스크린은 랙 앤 피니언 시스템(톱니 막대와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기구)으로 작동되고 남측과 서측 입면에 위치한다. 이 회전하는 셔터는 건물이 위치한 애스핀에서 느낄 수 있는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가는 햇빛을 추상화하고 묘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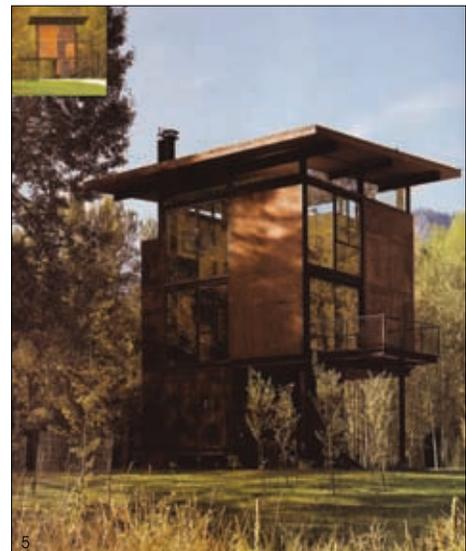
- New England House는 검은 색 고무와 삼나무 재질로 처리되어 있다. 오피스 디에이(Office dA)는 현존하는 녹색 자연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운 방식의 큐브를 제안했다. 주택의 북쪽 입면은 몬드리안과 미스를 연상하게 하며 검은색 고무로 굴뚝을 감쌌다. 동쪽 입면은 대지가 위치한 지역의 농장에서 보이는 버네쿨러 디자인을 상기시키는 판자벽으로 되어 있다.
- 위스콘신 지역에 있는 웬델 버넷(Wendell Burnette)의 Field House는 조용하고 편

안한 금속 건물로 이 지역풍경에 주요한 방점이 된다. 온건하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관입으로 이 건물은 우아하고 심플하게 미묘한 정제를 보여준다.

- 알바로 시자(Alvaro Siza)의 아들 알바로 레이테 시자 비에이라(Alvaro Leite Siza Vieira)가 설계한 Casa Tolo는 급경사의 비탈을 계단식으로 내려간다. 주택은 소수의 개구부가 있으며 테라스와 계단이 33도의 비탈에 맞춰 번갈아 위치한다. 주차는 언덕 비탈 위쪽에서 지붕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구부는 방에 하나씩, 높이가 변하면서 하나씩 위치한다. 침실은 계곡의 풍경을 보기 위해 건물의 주축에서 회전한 상태로 관입되어 있고, 수영장이 가장 낮은 고도의 테라스에 있다. 큰 거실은 계단이 캔틸레버로 벽에 부착되어 추상적이면서도 가볍고 떠오르는 느낌을 준다. 에셔와 피라네시의 그림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자는 계단을

통해 시각적인 놀이를 시도한다. 번갈아 나타나는 깊은 시각이 확보되는 직선형 계단과 차단되는 짧은 계단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건축물은 이곳 바로 포르투갈의 빌라 레알이 아니면 생각조차 하기 힘든 건물이다. 거장의 아들은 가파른 지형의 독특한 형태에 맞춰 집을 만든 것이다.(글 / 김 훈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 선문대, 우송공대 출강) ▣

1. Box House
2. Casa Tolo
3. New England House
4. Las Arenas Beach House
5. Las Arenas Beach House



이번 호의 특집은 ‘자연과 함께하는 주택(Living with Nature)’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주택이라고 하



면 친환경적인 주택을 떠올릴 수도 있고,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농가풍의 소박한 주택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은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자연 경관 속에 자리 잡은 세련된 주말주택들이다. 이들에선 도시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과 자연의 멋진 경관을 함께 즐기려는 욕망이 그대로 느껴진다.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번 a+u 3월호의 특집 주제인 ‘Living with Nature’에서는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 홀로 자리 잡음으로서 자연과 호흡하지 않을 수 없는 주택들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작품 중에는 한적한 시골마을에 자리 잡은 것들도 몇 몇 보이지만 이들에 대한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이들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진 작품들은 해안가의 바위 절벽에 홀로 자리 잡거나 혹은 사막 한가운데 외로이 서있는 주말주택들이다. 이들은 편안하게 자연과 호흡한다기 보다는 거대한 대자연 속에 홀로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정도인 것들도 있다. 자연 속에 홀로 자리잡았지만 이들 주택은 소박한 은둔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실력 있는 건축사에게 맡겨져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주택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이들은 자연 속에

홀로 자리 잡은 고급 휴양용 주말주택들이다.

- 해변에 자리 잡은 주택은 페조 폰 엘리히스하우젠(Pezo von Ellrichshausen) 아키텍츠의 「폴리(Poli) 하우스」, 클레송 코이비스토 루네(Cleasson Koivisto Rune)가 설계한 「크로코모라 섬의 주말 주택」, 줄리 스노우(Julie Snow) 아키텍츠의 「퀸러(Koehler) 하우스」 그리고 마르코 바라니(Marc Barani)의 「빌라 인더 사우스 오브 프랑스」 등이다.

- 「폴리 하우스」(사진2,3)는 칠레의 콜리우모반도에 세워졌다. 인구가 적은 이곳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주민과 여름철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전부인 곳이다. 건물은 여름의 별장과 문화센터라는 2개의 기능을 함께 지닌 것으로, 집회나 전람회, 워크샵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콘크리트 입방체속에 모든 공간을 담아내었고, 거푸집의 판자들의 이음매를 그대로 드러낸 거친 표면의 노출콘크리트로 외관과 내장을 마무리 하였다. 건물의 외벽은 2겹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사이 공간에 모든 설비와 동선 공간을 집어넣었는데, 이는 거친 콘크리트 외벽이 주는 질감과 함께 두터운 외벽의 느낌을 주어 해안가의 암벽위에 홀로 서서 그 안에 품은 방문자를 보호하는 요새와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벽마다 대담하게 열린 정사각형의 대형 창들은 건물

외부의 광활히 펼쳐진 해안의 풍경과 호흡하는 장치이다.

- 「크로코모라 섬의 주말 주택」은 법적으로는 모(母)주택의 게스트하우스로서 허가가 난 것이다. 그러나 모주택의 주인과는 별개의 가족이 휴가를 보내야 하므로 불과 8m 떨어진 모주택과 면한 입면에는 개구부 하나 없이 시선을 차단해야 했다. 반면 그 이외의 파사드들은 발트해를 향해 열린 모습이다. 「퀸러 하우스」(사진4,5)는 「폴리하우스」처럼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주말주택이다. 해안의 암반위에 선 이 주택은 미스의 「슈레더 하우스」를 연상시키는 심플하고 개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빌라 인더 사우스 오브 프랑스」(사진6)는 남부 프랑스에서 프랑스인들이 즐기는 휴가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주택이다. 다른 세 주택처럼 해안가에 바짝 다가서 있지는 않지만 마을 너머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1층에는 식당과 응접실을 겸하는 거대한 거실, 흡연실, 어린이 놀이방 및 주방 등 공용공간이 자리 잡고 2층에는 각기 독립된 욕실을 갖춘 6개의 침실이 해안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며 배치되었다. 단 하나의 기둥 없이 20미터 이상 돌출된 1층의 캔틸레버 지붕이나 다리처럼 놓여진 2층 매스는 이 주택의 고급스러움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거실과 외



부 테라스를 경계 짓는 유리벽은 놀랍게도 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도록 되어 있다. 유리벽을 바닥면으로 하강시키면 거실과 테라스는 완벽하게 하나의 공간이 된다. 이와 같은 설비시설 또한 이 주택이 추구하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각을 잘 대변해 준다.

• 소개된 작품들은 대부분 자연속에 던져진 세련되고 심플한 상자와 같다. 입면의 대부분을 유리벽으로 처리하면서 주변의 경관을 실내로 흡수하고,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제

공하여 도심의 세련된 주거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끽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소개된 스티븐 홀(Steven Holl)의 「터블런스 하우스」(사진7)의 조형적 아름다움에 비중을 둔 인테리어를 통해서도 이 같은 점은 명백히 드러난다. 생활의 흔적이나 일상의 모습보다는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것은 이들이 주말주택으로서의 성격에 충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호의 제목으

로는 너무 폭넓고 고상한 듯싶다. 차라리 '주말 주택'이 더 정확하고 솔직한 제목이 아니었을까 싶지만 오랜만에 보는 교외 주택들의 모습들이 반갑기도 하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